

‘성심성의’ 정맥 이은 불화 만나자

만봉불교재단, ‘만봉불화회고전’ 26일부터 화봉갤러리서

2006년 5월 세수 97, 법랍 81세로 봉원사 운수각에서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고 불화 조성에 전념한 만봉 스님은 전통불교문화의 맥을 계승하는 동시에 현대불화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영국의 대영제국박물관과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미술의 거장이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제48호 단정장)였던 만봉 스님(1910~2006)의 불화 회고전이 열린다.

만봉불교재단(이사장 이용국)은 8월 26일~9월 1일 서울 인사동 화봉갤러리에서 만봉 스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불화 회고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고전에는 만봉 스님의 대표작인 팔상도와 극락도 등 150여 작품과 스님의 제자 10명의 작품 10점, 기타 유품 62점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 대해 임영주 전통공예미술관장(前 문화재위원)은 “만봉 스님의 독특한 기법은 색상이 유독 화려하다는 것과 초(草)가 다양하고 세밀

하다는 뚜렷한 개성이 돋보인다”며 “한 번은 만봉 스님에게 기법에 대해 물었을 때, ‘성심성의(誠心誠意)를 다해서 전통의 정맥을 이어가는 게 기법이라면 기법이랄까’ 이 한마디로 자신의 기(技)를 일축한 적이 있다”고 평했다.

한편, 만봉불교재단은 오는 2010년 강원도 영월군 만경사 인근 3000여㎡ 규모의 만봉불화박물관을 건립해 만봉 스님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불화제작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봉불화의 세계’ 주제학술세미나 개최, 만봉불화도록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만봉불교재단은 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만봉 스님 불화 소장품을 기증받고 있다. 현재 재단에 기증된 작품은 모두 193점. 만봉전승회 최복승 회장이 150점, 만봉 스님 제자 진월 스님(봉원사)이 불화초(草) 40점, 부산 관음사가 영산회상도 1점, 밀양 영암사가 괘불탱 1점, 김대원 재단 사무국장이 십이지신도 1점을 각각 기증했다. 재단은 기증작품의 경우 작품 고증 및 만봉 스님 회고작품 출

품, 기증자 명패 제작과 함께 불화박물관에 영구 소장할 방침이다. 만봉불교재단 최복승 이사(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는 “이번 전시회는 만봉 스님의 작품을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많은 이들이 불화를 친견해 감상하고 영월에 조성되는 박물관에도 직접 찾아와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02)333-9331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故 만봉 스님.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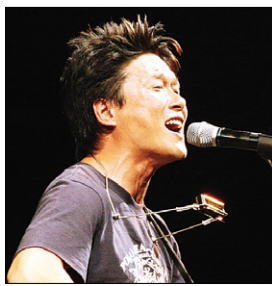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박수!’

노래꾼 안치환과 밴드 ‘자유’ 8월 21~27일 공연

우리 시대의 노래꾼 안치환과 그의 밴드 ‘자유’가 4년만에 소극장 공연을 펼친다. 8월 21일부터 1주일 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콘서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박수!’를 여는 것.

안치환은 이번 콘서트에서 ‘자유’를 사랑한 이유 ‘당당하게’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위하여’ 등 히트곡을 비롯해 신곡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요란한 볼거리 보다는 노래와 사운드에 집중해 관객의 몰입을 유도해내는 소통의 무대로 펼쳐진다. 익숙했던 노래들을 새롭



가수 안치환.

게 편곡된 사운드로 들려주고 밴드 음악의 거친 면과 전자음을 최대한 줄여 자연스러운 울림과 어쿠스틱한 느낌을 살릴 계획이다.

안치환은 “쇼적인 모습 보다는 저의 압박을 하나하나의 물론, 연주자들의 세밀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등 오직 음악으로 진정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호승 시인의 작품을 노래로 옮기며 두 번째 시노래 앨범인 9.5집을 발표했던 안치환은 내년 상반기쯤 10집을 발매할 생각이다. 4만~4만 4000원, 1544-1555 김성우 기자

네팔 만다라 선보여 네팔관광청 나무갤러리서

네팔의 불교예술품들이 인도양을 건너 한국 불자들을 찾아온다. 네팔관광청은 9월 2~15일 조계사내 불교중앙박물관 나무갤러리에서 네팔불교 예술품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80여 점의 네팔 불교미술품은 만다라와 탱화가 중심을 이룬다. 만다라는 신성한 단(壇)·성역에 부처님과 보살을 배치한 그림으로 우주의 진리를 상징화한 불화다. (02)2011-1965 김성우 기자

옛그림속 茶 이야기

② 대구 두육의 詩 ‘천부’ 대구 언급한 최초의 기록

지금으로부터 약 1700여 년 전인 중국의 서진(西晉, 265~316)시대, 차를 주제로 한 시 한 편이 전하고 있다. <중략> 물은 민강의 것 흐르는 맑은 물 길러 다기는 잘 가려 월주 도기로 해야 한다네. 표주박으로 찻잔을 삼은 건 옛 조상님들이 하던 그대로라지 마야호로 찻탕을 달이니 차가루는 살포시 내려앉고 다정은 그윽하게 떠오르니 빛나가는 흰 눈 같

武가 지은 <일지록(日知錄)>에는 ‘진(晉)나라가 촉(蜀)나라를 멸망시킨 후, 촉의 영향으로 차를 마시는 풍습이 확산됐다’라는 기록이 있어, 이 시기에 차 문화가 활약유역으로 확산됐음을 알려준다. 또한 <남제서(南齊書)>의 기록에 따르면 제사 때에 살아 있는 동물을 대신해 떡, 차, 술을 바치도록 하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보아 당시 차가 귀족문화의 발달과 함께 고급문화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진남북조시대는 차에 있어서 문화적 기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이며 이후 수준 높은 당·송대의 차 문화를 예고하는 시기인 것이다. 두육이 ‘천부’를 쓴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다.



‘청자화형탁잔(靑磁花形托盞)’ 중국 영파시박물관 소장.

환하기가 봄 햇살 같다네. (약: 석도원) ‘천부(茶賦)’는 두육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는 차를 주제로 한 시인 동시에 좋은 대구(茶具)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여기서 시인은, 찻잎의 성질과 채취방법, 사용하는 물과 차의 빛깔을 섬세하게 헤아려 고상한 정취로 묘사하고, 제다의 전체적인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의 시각에서 본다면 차의 성격에 맞는 대구를 선택하고, 문화로서 이를 향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급의 문화로 차를 이해하고 즐기게 된 것은 두육이 활동하던 시대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차가 식육을 돌우는 음식을 넘어서 고상한 아취를 지닌 문화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차나무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으나 인류가 처음으로 차를 마시기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삼황시대의 신농씨는 차를 우연히 발견해 해독의 기능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차의 기원이 상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구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차나무의 원산지는 중국 서남부에 해당하는 파·촉 지역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은 오래전부터 찻잎과 찜로 죽을 끓여먹었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후한(後漢)의 <동군록(桐君錄)>에는 ‘서양, 무창, 진이름에서 좋은 차가 나오고, 파동에서는 좋은 향을 지닌 차가 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후한시대의 차는 식용이 아닌 음료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위진남북조시대(221~589)는 차 문화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때이다. 고염무(顧炎

‘다기는 잘 가려 월주 도기로 해야 한다네(器擇陶揀出自東甌(越州)).’ 두육의 시에서 월주요 자기를 언급한 것처럼 차 문화의 발전은 청자의 확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월주요청자는 한대(漢代)부터 시작해 북송대(北宋代)까지 약 1000년 간 중국 청자의 주류를 이루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러한 월주요의 청자기 술은 9 세기경에 유입돼 고려청자의 모태가 됐고, 고려 차 문화 융성의 밑거름이 됐다. 따라서 월주요가 우리의 차 문화에 미친 영향도 간과할 수는 없을 듯하다.

차 문화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차의 맛과 빛깔을 가장 잘 살리고, 음대에 알맞은 다원이 무엇인지 항상 심사숙고하게 된다. 아무리 그 형태가 아름답다 해도 차의 특성을 잘 보존해 담아내지 못한다면 다원의 첫 번째 덕목을 잃게 되는 것이다. 중국 영파시박물관 소장의 <청자화형탁잔(靑磁花形托盞)>은 월주요에서 제작된 청자이다. 비색이라 칭송받던 이 푸른 다기에 맑은 홍색의 차를 붓고 바라보면 담황색으로 변해 그 빛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전한다.

이항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현대불교현불샵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쯤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곡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향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 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가 격 : 대형 ₩ 238,000 ⇒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 198,000 ⇒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골참나무 100% 국내산)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